

“다윗의 이중생활”

사무엘상 27:1-12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과연 다윗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번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이 옷을 벗어 놓았을 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어 놓고 그를 살려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울이 하길라 산에 진을 치고 진영에서 잠을 잘 때 다윗이 몰래 잠입하여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머리 위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삼상 26:9)**

사실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그래 보이지만, 다윗은 기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맞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이번에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다시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자신의 몸을 그에게 의탁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오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는 신앙의 양심을 팔아 먹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며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오히려 더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삼상 27:1)**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동안에는 다윗은 이런 저런 생각을 할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순간, 한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물리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그저 편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꼭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오히려 그 많은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닌, 내 생각과 계획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 1:18)**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계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형편이 딱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새벽예배 나오세요’, ‘헌금 생활에 게을리 해서 안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인본주의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본주의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이기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상대로 두 번이나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에게 밤낮으로 쫓기는 불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통해 다윗은 비로소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머물면서 육체적으로는 편안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시를 썼지만,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시를 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27:4)**

모처럼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껍데기 평안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면, 비록 고생을 하고 몸은 불편했을 수 있으나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힘든데 은혜가 있는 쪽이 나올까요?  
은혜는 없어도 몸이 편한 쪽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나눔의 시간

1.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그르쳤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몸은 힘든데 은혜가 있는 쪽 vs 은혜는 없는데 몸은 편한 쪽' 우리는 이 두가지 중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오늘 말씀을 접하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까요?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태해 지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로 있으며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삼상 27:8-9)**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선, 이스라엘을 치고 왔고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은 모두 잃어 버리고 신앙없는 악탈자에 지나지 않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한심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그의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